

# 박항서, 베트남 국영 TV가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

글 민영규 하노이 특파원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이 지난해 베트남 국영 TV가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로 등극했다.

베트남 국영 VTV1은 지난해 12월, 박 감독을 베트남을 빛나게 한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다. VTV1은 해마다 그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을 뽑는데 이번에 극히 이례적으로 외국인인 박 감독이 선정됐다.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동시에 취임한 박 감독은 지난해 베트남 축구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다.

2018년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 신화를 만들었고, 9월 아시안게임에서도 베트남 축구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12월 15일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려 베트남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박 감독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박 감독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한 현지 대기업 회장이 2020년 초 끝나는 박 감독



의 계약연장은 물론, 연봉을 대폭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자선경매에 나온 박 감독 초상화의 시작가는 5천 달러로 책정됐다. 박 감독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며, 한 가짜 팬 페이지의 팔로워가 19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감독을 광고 모델로 쓴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베트남 축구대표팀도 덩달아 광고 모델 섭외 1순위가 되고 있다.

박 감독을 광고 모델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현지 기업의 요청도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는 부품 소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박항서 정신을 국내 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성공사례 모델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폭 총리는 "박항서 감독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라면 선수들은 현지 기업 아나"면서 "박 감독은 그것을 잘 접목해 생태계를 만들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박 감독이 현지화를 잘 해서 신화를 이룬 것"이라면서 "박항서 정신이야말로 FDI 기업이

가져야 할 정신이고, 베트남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져야 할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투자계획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외국투자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 대사에게 "박항서 감독,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게는 각종 포상금이 쏟아졌다. 스즈키컵 공식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4천만원) 외에도 베트남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앞다퉈 포상금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업체 타코(Thaco) 그룹은 축구대표팀

에 20억동(9천740만원), 박 감독에게 10만달러(1억1천345만원)를 각각 수여했다. 박 감독은 이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포상금은 베트남 축구발전 등을 위해 써달라며 곧바로 기탁했다. 스즈키컵 결승 1차전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박 감독이 부상 선수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한 미담이 기사로 나오는가 하면, 박 감독이 스즈키컵 우승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기쁨에 겨운 선수들이 난입해 물을 뿌리자 선수들을 쓰다듬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화제가 됐다.

# 박항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국외자료조사팀을 이끄는 김득중 편사연구관은 몇달 전 프랑스 브르타뉴지방 렌(Rennes)에 거주한다는 한 동포 부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대서양 연안의 프랑스 소도시 생브리외(Saint-Brieuc)의 한 가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의 친필 서한, 임시정부의 재무부 포고령, 이승만의 임시정부 대통령직 탄핵을 알리는 '독립신문' 호외(號外) 등 역사학자들의 전문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자료들이 무더기로 남아 있다는 습사리 믿기 어려운 얘기였다.

국편에 연락을 취한 이들은 렌 경영대 김성영 교수와 렌2대 음대 송은혜 강사 부부.

이들은 반신반의하는 김 연구관에게 즉시 자신들이 찾아낸 자료들의 일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전송했고 국편은 연구자들을 모아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다.

이것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탄핵을 널리 알린 1925년 '독립신문' 호외판 등 재불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가 남긴 독립운동사 자료들이 최초로 확인된 일의 시작이었다.

렌 경영대에서 경영전략을 가르치는 김성영 교수는 평소 지역사회의 기업인들과 벤처투자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사회에서 엔젤투자자로 이름 높은 장자크 홍 푸안(76)이라는 이름의 노신사를 알게 된다.

프랑스인이지만 영국에서 엔지니어링과 경영학을 공부해 영어에 능통한 이 노인은 프랑스의



# 홍재하

평범한 중산층 백인 신사로 보였다.

처음에는 성(姓)에 있는 '푸안' 때문에 중국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좀 친해지고 나니 그는 자신이 한국말은 못 해도 한국계라고 털어냈다. 부친의 한국 이름은 '홍재하'.

"1960년 파리에서 작고한 부친이 한국에서 100년 전 프랑스로 왔고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고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보냈다는 말씀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김성영·송은혜 씨 부부는 한국어를 모르는 장

자크 씨가 '아버지가 남긴 자료가 많은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 도와달라'는 청을 받고 렌에서 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소도시 생브리외의 자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장자크 씨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곧 직감했다.

홍재하는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 북해, 영국을 거쳐 1919년 프랑스로 건너온 인물로, 프랑스 최초의 한인 단체인 '재법 한국민회'의 2대 회장을 지냈다. 당시 임시정부 파리위원회에 자금을 낸 독립운동가였지만 그 존재와 활약상은 거의 잊혀 있었다.

그러던 것이 동포 부부의 헌신과 홍재하의 흔적을 예전부터 추적해온 재불 사학자 이장규(파리7대 박사과정)씨의 기존 연구, 국편의 발 빠른 자료수집 노력이 합쳐지면서 홍재하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온전한 면모를 사후 50여년 만에 되찾게 됐다.

김성영·송은혜 씨 부부는 경영학과 음악학을 전공하고서 프랑스 대학 강단에 선 학자들이다. 자료정리를 하면 할수록 홍재하의 독립운동 공적이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 차남 장자크 씨를 가까이에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홍재하의 차남 장자크 씨는 김성영·송은혜 씨를 통해 국편에 부친의 기록물 일체를 기증하기로 했다. 국편은 이 자료들의 보존과 연구를 거쳐 '홍재하 컬렉션'(가칭)을 꾸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 이집트서 오페라 '아이다'로 우뚝 선 테너 이정환

글 노재현 카이로 특파원

"오페라 아이다가 초연된 역사적인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테너 이정환(40·제임스 리)씨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국문화원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환한 웃음을 보였다.

전날 밤(2018년 12월 4일)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열연을 펼친 그의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이씨는 "어제 이집트에 여행 오신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다"며 "그분들은 우연히 오페라 공연을 보러왔는데 한국 사람이 주인공인 것을 알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다"고 말했다.

이씨는 1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첫 한국인 테너다.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대표작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그의 말처럼 카이로 오페라하우스는 아이다에 특별한 장소다.

아이다는 이집트 국왕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건설을 기념해 작품을 의뢰하면서 탄생했다. 1871년 12월 처음으로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뒤 이집트의 대표적인 오페라로 자리 잡았다.

매년 카이로 오페라하우스나 카이로 외곽 기자 지역의 대피라미드 앞에서 아이다 공연이 펼쳐진다.



이씨가 오페라 무대에 서려고 이집트를 방문하기는 벌써 세 번째다. 2016년 3월 라다메스 장군 역으로 처음 카이로 오페라하우스를 찾았고 지난해 4월에도 이곳에서 공연했다.

오스트리아 린츠 국제성악콩쿠르, 발렌틴 테오도리안 국제성악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그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남대 성악과를 거쳐 2002년부터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2010년부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뒤 '투란도트'의 칼라프 역과 아이다의 라다메스 역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2014년 빈 외곽 상트마르가레텐 오페라페스티벌에서 라다메스 장군 역을 처음 맡은 이후 아이다 공연에 60차례 넘게 출연했다.

라다메스 장군은 부드러운 음색으로 사랑을 담은 아리아를 부르고 카리스마도 갖춘 역동적인 인물이라서 소화하기 어렵다.

오페라를 '삶이자 생명'이라고 표현한 이씨는 공연에서 자신의 감정이 관중들에게 잘 전달된 것을 확인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으로 목표에 대해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의 느낌을 살려 다른 세계적인 극장인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 뉴욕 '메트로폴리탄' 등에서도 아이다를 공연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

# 이정환

## 잊힌 재불독립운동가 재조명되기까지

글 김용래 파리 특파원